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일 시 | 2023년 7월 5일 (수) 14:00~16:50

|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 공동주최 |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
(대표의원: 인재근, 고영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행복농자
아우터리움
협동조합

순서

14:00-14:10 **개회 및 인사말**

14:10-14:50 **발제**

일본 농복연계를 통해 살펴본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제도화 방안

- 배진영 부센터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 이용표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4:50-15:00 **쉬는시간**

15:00-16:10 **토론** 좌장 조원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한국 사회적 농업의 현주소와 보건복지 적용 가능성

- 김정섭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회적 농업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개발(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 김병두 대표(푸르메소셜팜)

사회적 농업을 통한 정신장애인 직종 개발의 가능성

- 이정주 센터장(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경험 사례와 향후 과제

- 오승애 대표(천사베리농장)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지원 방안으로서 사회적 농업의 가치

- 안병은 전문의(수원행복한우리동네의원)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부처 간의 협력 I

- 전명숙 과장(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부처 간의 협력 II

- 최봉순 과장(농림축산부 농촌사회서비스과)

16:10-16:4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40-16:50 **폐회**

환영사



안녕하세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대표의원 인재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토론회에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행복농장과 후원해주신 법무법인 디라이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신장애인은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편견은 정신장애인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이유로 노동 현장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2.9%로 전체 장애인 평균 37.3%의 삼분의 일 수준이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가족은 하루 종일 함께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장기입원을 보내거나 돌봄 때문에 빈곤 상태에 빠집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신장애인 맞춤형 노동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정신장애인이 본인의 장애 때문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구직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정신장애인 노동은 의학적·사회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농업이 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정신장애인을 농업활동에 참여시켜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통한 의학적 치유와 사회적 참여가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 적합한 노동 정책입니다.

범부처 차원의 접근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치유농업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농업과는 다르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정신장애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적 농업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농업과 복지, 고용 등의 각 영역을 주관하는 부처의 협업과 일원화된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중요합니다.

학계, 현장 종사자, 중앙부처 공무원 등 많은 전문가께서 모여주셨습니다.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제도화를 위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저 역시 함께하며 관심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갑 국회의원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공동대표

인재근

환영사



안녕하세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공동대표 고영인입니다.

먼저,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 개최에 힘써주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및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더불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은 12.9%, 고용률은 10.9%에 그치며, 모든 장애 유형 중 최하위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은 62.0%로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7년에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며, 지역사회 서비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는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의 직장 적응 문제와 구직활동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현실적 대안을 찾아, 이들이 남들처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희망은 비로소 '사회적 농업' 제도화를 통해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사회적 농업 제도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와 농촌 일자리를 제공하는 ‘치유농업’을 수행함으로써 정신장애인 복지와 함께 농업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의 농복연계 제도, 네덜란드의 케어팜 프로그램 등, 이미 많은 국가에선 사회적 농업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과 복지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의 확산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와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도 이젠 고용과 복지, 농업을 따로 구별치 않고 한 차원의 영역으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가 정신장애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농업과 복지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차별 없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의 고견을 경청하여, 향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국회의원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공동대표

고영인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노태호입니다.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우리 연구소와 함께 이 토론회를 개최해 주시고, 준비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해주신 국회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 인재근·고영인 의원님 그리고 행복농장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제와 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지난 수년 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노동권, 자유권, 복지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정신장애인들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열악한 생활실태 속에 지역사회에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정신장애인의 고용현황과 빈곤율은 2017년 조사 결과에 비해 훨씬 더 악화되었고, 다른 유형의 장애와도 큰 격차로 열악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신건강서비스나 장애인복지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들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기존의 서비스들을 확충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사회적 농업'을 통해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농업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활동'으로서 서서히 자리매김해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돌봄·회복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함께 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고용, 복지를 비롯하여 사회적 농업에 관한 의견과 고민들을 통합하고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농업과 복지를 연계해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의 첫걸음을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노태호

목 차

- 1 일본 농복연계를 통해 살펴본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제도화 방안 .. 1
배진영 부센터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이용표 교수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 한국 사회적 농업의 현주소와 보건복지 적용 가능성 19
김정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3 사회적 농업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개발(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31
김병두 대표 (푸르메소셜팜)
- 4 사회적 농업을 통한 정신장애인 직종 개발의 가능성 43
이정주 센터장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5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경험 사례와 향후 과제 49
오승애 대표 (천사베리농장)
- 6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지원 방안으로서 사회적 농업의 가치 71
안병은 전문의 (수원행복한우리동네의원)
- 7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부처 간의 협력 I 83
전명숙 과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8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부처 간의 협력 II 91
최봉순 과장 (농림축산부 농촌사회서비스과)

1

일본 농복연계를 통해 살펴본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제도화 방안

배진영 부센터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이용표 교수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본 농복연계를 통해 살펴본 정신장애인 사회적농업 제도화 방안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용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센터장, 배진영

일본 농복연계 제도의 도입

농복연계란

- 농업과 복지가 연계하여 농업분야에서의 장애인의 활약을 통해 농업경영의 발전은 물론, 장애인의 자신감과 보람을 창출하며 사회계획 참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을 의미
- 사회적 취약계층인 고령자, 장애인, 생활곤궁자의 취업과 치유,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
- 일본에서는 농업종사자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분야에서의 노동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언급되어 왔기에, 장애인의 농업참여 촉진을 통한 노동현장의 노동력 확보에 대한 기대를 포괄

제도적 도입과정

- **일본1억총활성화플랜:**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이 지역, 생활, 삶의 보람을 함께 만들고 함양할 수 있는 지역 공생 사회의 실현을 목적
- **새로운지역포괄지원체제:** '지역을 기반으로 보건복지와 고용, 농업, 교육 등 다른 분야와의 연계'에 대한 취지
- **일본농복연계협의회 발족:** 전국 농복연계에 관련된 단체를 포괄하는 플랫폼이 설립
- **농림수산업·지역활성화창조플랜:** 복지분야 등과의 연계에 따른 농산어촌 재생을 위한 대응 추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하기 위해 내각관방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농복연계 등 추진회의' 설치

➔ *법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 등에 걸친 프로젝트로서, 장애인이나 생활곤궁자, 고령자의 건강한 삶의 보람 만들기, 교육, 사법 영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농업을 활용하는 것을 추진*

농복연계 사업내용

사업주체



- 농업경영체의 약 80% 이상이 "장애인 고용을 통한 수익성에 효과가 있다"고 답변
- 농업경영체의 약 76%가 "장애인이 농업현장에서 귀중한 노동력이 되고 있다"고 답변
- 복지사업소의 약 80%가 "장애인이 보다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답변
- 복지사업소의 약 70%가 "과거 5년 간 장애인의 임금이 증가했다"고 답변

➔ 농복연계의 주체인 농업경영체, 복지사업소, 장애인에게 모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시사

농복연계 사업내용

농업경영체 시점에서의 농복연계 노동력



직접고용

장애인을 직접 인력으로 고용



시설 외 취업

복지사업소 직원의 동행 하에
농장에서 장애인이 근로



시설 내 하청

복지사업소에 가벼운 작업 의뢰

농복연계 사업내용

복지사업소 시점에서의 농복연계 취업지원

			
<p>복지형농장 운영</p>	<p>시설 내 하청</p>	<p>시설 외 취업</p>	<p>직접고용</p>
<p>복지사업소에서 직접 농장 운영</p>	<p>농가로부터 외주작업을 받아 작업 수탁</p>	<p>복지사업소 직원이 동행하여 취업지원</p>	<p>시설이용 장애인이 다른 농장에 고용되도록 취업알선</p>

농복연계 사업내용

사업유형

이외에도 '공동상품 개발형', '소비확대 연계형', '공동판매형' 등 다양한 연계의 형태로 유형이 확장되고 있음

- 복지농장형**

 - 복지사업소가 부지 내에서 빌린 농지에서 직접 농업 실시
 - 농복연계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부터 진행되어 옴
 - 농업지식을 갖고 농작업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함
- 시설외취업형**

 - 복지사업소의 이용자가 농가에 출근하여 농작업을 수행
 - 복지사업소 및 농업경영체 모두 초기 투자가 적고 비교적 진행이 쉬움
 - 농업경영체와 복지사업소를 연결하는 코디네이터에 대한 니즈가 발생
- 시설내하청형**

 - 복지사업소가 농업경영체의 의뢰를 받아 시설 내에서 가벼운 형태의 농작업 실시
 - 복지사업소 및 농업경영체 모두 초기 투자가 적고 비교적 진행이 쉬움
 - 농업경영체와 복지사업소를 연결하는 코디네이터에 대한 니즈가 발생
- 고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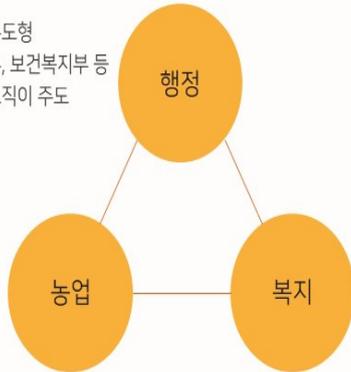
 - 농업경영체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함
 - 잠재적으로는 이전부터 존재했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음
 - 농업경영체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대처 능력 등이 필요함
- 기업의 특례자회사형**

 - 기업이 법정고용률 달성을 목적으로 특례 자회사설립하여 농업에 참여
 - 단독기업으로 계속 이어가지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
 - 다른 농가의 작업을 요청받는 형식으로 사업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농복연계 사업내용

네트워크의 추진

- 행정주도형
- 농정부, 보건복지부 등 행정조직이 주도



- 농업단체주도형
- 지역농업협동조합, JA 등이 주도
- 개별사업자주도형
- 농업경영체가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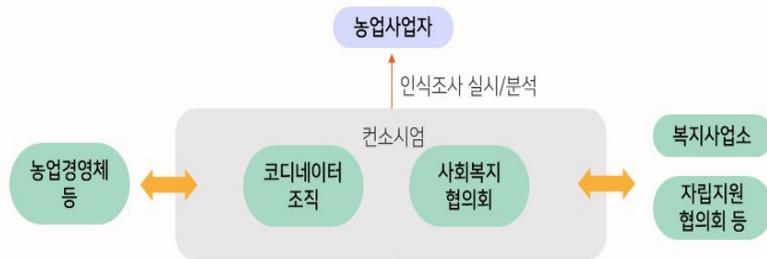
- 복지단체주도형
- 자립지원협의회 등이 주도
- 개별사업자주도형
- 복지사업소가 주도



- 네트워크 간 정보 공유
- 기초 지식 및 실천사례 학습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상호 견학 및 작업 체험
- 시설 내 작업이나 하청에 대한 논의
- 농장/농업협동조합의 시설 등에서의 시험 취업
- 취업 추진
- 공동판매마켓(마르쉐) 개최
- 공동상품개발 및 제조작업 위탁 등

농복연계 사업내용

주요 과제 및 세부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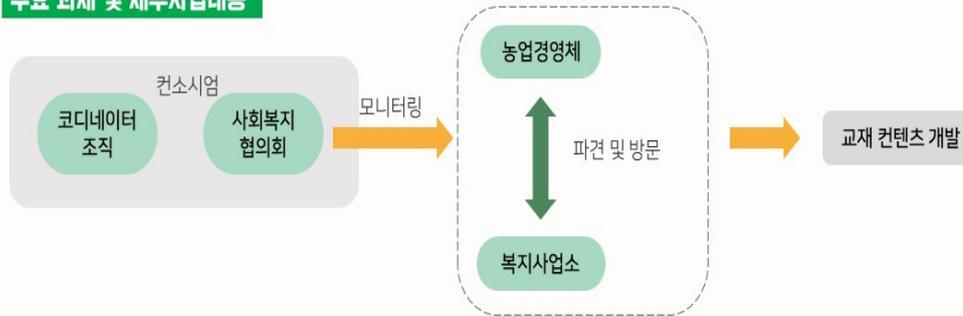
1. 농업경영체와 복지사업소를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

- 훗카이도의 경우 코디네이터 조직과 사회복지협의회가 컨소시엄을 맺어 코디네이터 역할을 공동 수행
- 농업경영체의 농작업에 대한 요청과 복지사업소의 구직 요청에 대해 매칭 지원



농복연계 사업내용

주요 과제 및 세부사업내용



2. 농업과 복지의 서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홋카이도의 경우)

- 복지사업소의 경우, 농업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농업기술 향상을 위해 전문가를 파견
특히 복지사업소에서 직접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 농복연계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농업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
복지사업소가 농업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농업경영의 경험자,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통해 자문
- 농업경영체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
농복연계에 참여하는 농업측과 복지측이 모여 사업의 방안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상호견학회를 통해 서로 교차하여 확인
복지사업소의 잡코치가 농업경영체에 파견되어 장애인의 근로에 대해 개선할 점을 발견하고 검토

농복연계 사업내용

주요 과제 및 세부사업내용

3. 장애인이 농업경영체에서 근로하는 경우, 접근성을 어떻게 향상할 것인가?

- 농복연계대책비
 - 농복연계지원사업: 장애인의 기술 습득, 작업공정의 매뉴얼화, 유니버설 농원의 운용 등을 지원 (최대 2년간)
 - 농복연계정비사업: 장애인 등의 작업을 배려한 생산시설, 유니버설 농원시설, 안전 및 위생과 관련한 부대시설 정비의 지원 (최대 2년간)
 - 보급계발 전문인재 육성추진대책사업: 농복, 임복, 수복연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착하기 위해 전문인재 육성 등을 지원

농복연계 사업내용

주요 과제 및 세부사업내용

4.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장애자종합지원법에 따른 취업지원제도와 연계

<p>취로계속지원 A형 사업 (고용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계약 체결 등에 따른 취업기회 제공, 생산활동의 기회 제공 • 그밖의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 • 장애인종합지원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소는 서비스제공기관이면서 이용자를 고용하는 사업소의 지위 (보호고용)
<p>취로계속지원 B형 사업 (비고용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취업이나 생산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 • 일반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 함양된 자는 B형 사업을 거쳐 일반취업 등으로의 이행을 목표

농복연계사업에 참여하는 농장/기관들이 취로계속지원 A, B형 사업과 연계하여 장애인에게 훈련 및 임금을 제공하고 있음

농복연계 사업내용

주요 과제 및 세부사업내용

4.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취업지원제도

<p>취업촉진 및 정착계속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라이얼고용: 장애인과 관련한 지식이나 고용경험이 없어 망설이는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시용고용제도로, 장애인 고용에 임하는 계기를 마련해줌 • 특정구직자고용개발: 장애인 등의 특정한 취업관련자를 대상으로, 이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거나 새롭게 고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50만엔을 지급
<p>장애인직업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평가, 직업재활계획 책정 • 준비훈련, 직업능력 평가 • 취업 후 직장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작업체험, 직업준비 강습, 사회생활 및 기능훈련, 커뮤니케이션능력 및 대인능력 향상에 대한 직접 지원 등
<p>잡코치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정착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고용 이후에도 적응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잡코치를 사업장에 파견, 직접적/전문적 지원을 제공

홋카이도 농복연계 실천사례

행정부: 일본 홋카이도청 보건복지부 및 농정부

- 홋카이도청 보건복지부의 역할
 - 후생노동성의 장애인공임향상계획지원등 특별사업의 일환으로, 농복연계를 활용하여 장애인 취업촉진프로젝트를 실시
 - '농복연계촉진사업위탁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컨소시엄의 형태로 실시: 현재 일반사단법인 한 곳과 사회복지법인 한 곳에 위탁, 이들은 홋카이도 농복연계마켓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 농복연계촉진사업의 일환으로 (1) 농복연계마켓(마르쉐) 개최, (2) 농복연계 매칭지원, (3) 농업전문가 파견, (4) 성과보고회 개최
- 홋카이도청 농정부의 역할
 - 보건복지부와는 달리, '농업의 고용인재 확보'에 중점을 두고 농복연계사업에 접근
 - (1) 농복연계를 막 시작하려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연수 제공, (2) 복지관계자 및 농업관계자 대상 강의형 연수 제공, (3) 농업의 세분화와 작업지시 주요 방법 등을 알려주는 필드워크 연수 제공

홋카이도 농복연계 실천사례

복지사업소: 아그리클라팜

- 개요
 - 복지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복지농장형 양계사업장
 - 복지사업소가 직접 부지 내에서 농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농업지식을 갖고 농작업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형태
 - 취로계속지원 A형과 B형을 모두 운영하고 있었음
 - 주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 당사자들이 근로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연령층이 분포
- 장애인 작업내용과 지원
 - 양계작업 전반: 닭 모이주기, 물/사료 배합기 조작, 달걀 수집, 배달하기, 포장하기 등
 - 복지사업소 전문인력이 작업에 대한 지도와 코칭을 제공하나, 업무 시간 내내 감독하기보다는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일을 충분한 시간에 걸쳐 완료하는 것을 지향
 - 장애인 근로자가 적정한 상품 가치를 창출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각자 역량에 따라 상이하므로, 시간 내 작업 완료가 어렵다면 추가적인 코칭과 지도를 제공
 - 매일 정서적, 신체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당사자 스스로 자기 상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며; 매월 1회 직접 면담을 실행; 외부 상담지원소를 활용하여 전체 근로자와의 미팅을 추진, 일과 생활 전반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약물복용시 모니터링하고 과다한 약물복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줄여나갈 수 있도록 개입

홋카이도 농복연계 실천사례

복지사업소: 아그리클라팜

농업운영 및 판매상품



홋카이도 농복연계 실천사례

복지사업소: 아그리클라팜

인력, 재정 및 수익구조

- 현재 장애인 근로자가 받고 있는 임금은 홋카이도 최저시급 기준 920엔에 따르고 있음
- 취업계속지원 A형(고용형)을 통해 근로하는 장애인은 총 17명으로 9:30-15:30까지 매일 총 6시간 근로
- 이들에 대한 임금은 사업을 통한 매출액으로 충당
- 농복연계지원사업과 취업계속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액으로는 농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 시설 설비 비용등으로만 지출 가능
- 대신 복지사업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 잡코치 등 전문인력 고용시 이들 임금은 국가보조금으로 지출 가능

성공 요인 및 한계점

- 잡코치 제도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복지사업소의 인력이 투입되어 직접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거나 농장 활동을 직접 수행해야 했으나, 잡코치 제도를 통해 보다 원활한 농장 운영이 가능해짐
- 초기 농장을 착수할 당시, 농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적자, 재고 폐기 등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음
- 이후 농복연계사업을 통한 각종 지원과 자체적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으나, 초기에는 많은 실패와 자금 지출이 불가피했음

홋카이도 농복연계 실천사례

농업경영체: 오츠카팜

- 개요
 - 영리 목적의 대규모 전문 농업생산법인으로, 주로 유기농 야채, 쌀, 각종 가공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음
 - 2-3년 전부터는 농업경영체에서 복지사업소의 장애인 이용자를 고용하는 시설외취업유형이 신설되어 농복연계 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었음
 -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소와 연계하여 작업 위탁 또는 직접 고용을 추진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지원시설에 정미사업을 위탁, 취로계속지원 B형 사업소 2개소와 A형 사업소 1개소를 통해 10-20명의 장애인이 주 4-5일간 오츠카팜에서 시설외근로, 장애인시설 1곳과 제휴하여 B형 형태로 농작물 포장 및 판매사업을 실시 중임
- 장애인 작업내용과 지원
 - 구체적인 작업지시, 세부적인 작업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매뉴얼화, 복지사업소에서도 언제든지 매뉴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설외취업의 경우 장애인 7.5명당 1명의 근로지원이 배치 가능; 농장의 스태프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작업지시를 하는 것은 법률상 위배가 될 수 있어 근로지원인이나 복지사업소의 파견인력을 통해 작업지시를 하고 있음
 - 농장 내 장애인을 위한 휴게실과 화장실 설치

홋카이도 농복연계 실천사례

복지사업소: 아그리콜라팜

- 농업운영 및 판매상품
 - 유기농업 재배 농산물 (쌀, 각종 야채)
 - 유기농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각종 상품 등



【고양이 보스 가봉】 유기 호미 달걀반



【고양이 보스 가봉】 고구마 다듬개사



【부표우유】 유기 표마표 우유 스낵 상자(720ml×2개)



2봉지까지 고양이 보스 가봉 있어 유기 쌀

- 성공 요인 및 한계점
 - 농업경영체가 농복연계활동을 지속하는 것에는 많은 이해와 노력이 뒤따름
농업경영체는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인고용, 장애인복지에 관한 이해와 관점이 부족하면 해당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움
 - 실제로 오츠카팜 이외의 다른 농업경영체들은 농복연계사업을 시도하였다가 중도 하차한 사례가 많은데; 장애인에 대한 이해, 복지와의 연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주요한 요인임
 - 농업경영체 입장에서 농복연계사업을 단순 노동력 보충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단기간의 성과에만 초점을 둔다면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한국 사회적 농업 제도 현황

농촌진흥청 관련 법률 및 정책

- 한국에서는 최근 '치유농업' 개념이 도입되어 발전하고 있음
- 초기 한국에서는 주말농장, 숲탐방과 같은 관광농업이 주를 이루었음
- 현재는 치유농업이 대두되면서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및 재활 등을 목표로 삼고 있음
- 2013년 '치유농업 정착을 위한 전략 개발'이 발표되면서 논의가 시작

「치유농업 정착을 위한 전략 개발」(농촌진흥청, 2013)

치유농업(Agro-healing)이란 농업·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

- 한편 이러한 논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회적 농업의 정의와는 상이
사회적농업/케어팜에서는 '의학적, 사회적 원조가 필요한 사람'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내 치유농업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힐링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

한국 사회적 농업 제도 현황

농촌진흥청 관련 법률 및 정책

- 한국에서는 최근 '치유농업' 개념이 도입되어 발전하고 있음
- 초기 한국에서는 주말농장, 숲탐방과 같은 관광농업이 주를 이루었음
- 현재는 치유농업이 대두되면서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및 재활 등을 목표로 삼고 있음
- 2013년 '치유농업 정착을 위한 전략 개발'이 발표되면서 논의가 시작

「치유농업 정착을 위한 전략 개발」(농촌진흥청, 2013)

치유농업(Agro-healing)이란 농업·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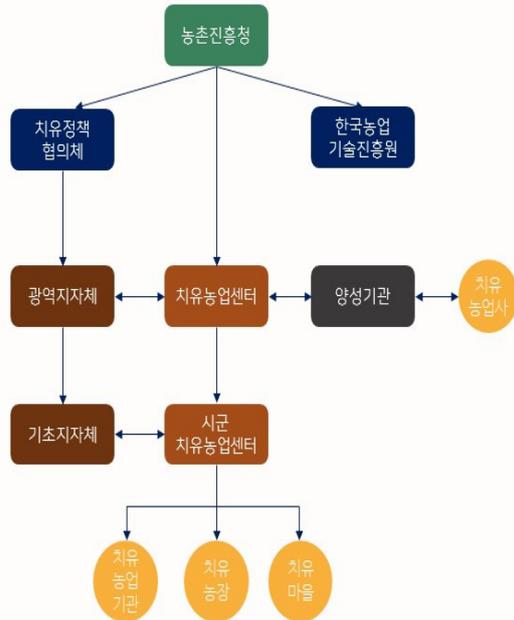
- 한편 이러한 논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회적 농업의 정의와는 상이
사회적농업/케어팜에서는 '의학적, 사회적 원조가 필요한 사람'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내 치유농업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힐링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지자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수행등(제10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각기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치유농업 육성사업' 등의 이름으로 해당사업 지원

한국 사회적 농업 제도 현황

농촌진흥청 관련 법률 및 정책

- 사례: 구례군 치유농업 활성화지원사업
- 목적:
농업·농촌의 자원을 이용하여 국민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농가소득 향상
- 사업내용:
체험·교육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치유농업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
치유농장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교재·교구 개발, 진단장비 구입 등을 지원함



한국 사회적 농업 제도 현황

- ✓ 치유농업법은 치유농업이라는 특화된 분야 활성화에 책임
- ✓ 농업인 삶의 질법은 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농업 발전에 책임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법률 및 정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삶의질법)' 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관장
- '농어업인들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제19조의4)'
 -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조합, 회사, 농어업법인, 비영리단체에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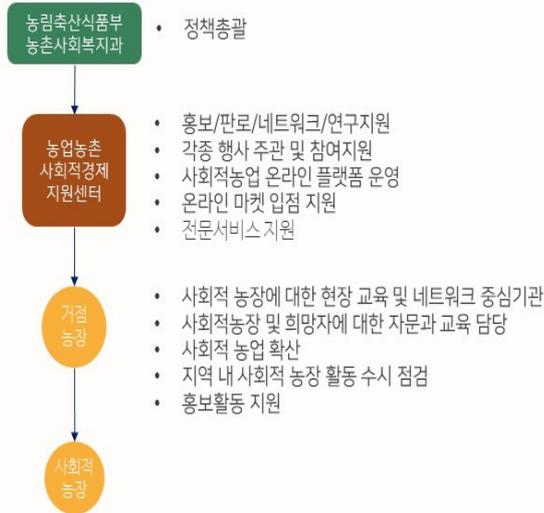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정신건강을 증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확산
- 사회적농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유도
- **사회적 농장:**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
- **지역서비스 공동체:** 농촌주민, 보건소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업체 등과 코디네이터가 결합하여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공동체 구축
- **거점농장:**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사업 대상조직(사회적농장) 중 권역별로 거점농장 선정

한국 사회적 농업 제도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법률 및 정책

사회적 농업 지원체계



국내 사회적농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적용방안

사회적 농업의 목적에 따른 구분이 모호

- ✓ 한국에서는 치유농업과 사회적농업이 강기 상이한 방향에 따라 추진
- ✓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가의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보 농복연계'제도와 치유농업은 사업목적에 일치하지 않음
- ✓ 반면, 사회적농업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 농복연계 사례를 통한 협의의 적용 가능성이 다분

- 농림부/한국농어촌공사는 사회적농업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여 운영매뉴얼을 제작한 바 있음
(1) 고령자 돌봄형, (2) 정신장애인 돌봄형, (3) 귀농청년 교육형, 귀농청년 교육형
-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사례 제시에 불과하며 전반적인 사회적농업을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음
- 또한 사회적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사회통합을 가장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고용형' 농장 사례는 전혀 다루어지지 못함
- 따라서 돌봄형, 교육형, 고용형으로 크게 사회적농업 유형을 구분하고 각 목적별로 운영체계와 사업의 지원 내용을 달리해야 함

돌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활동을 통한 보건, 복지적 측면의 치유가 목적 • 사회적농장 서비스를 사회서비스화하고 농업활동역량과 무관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확대
고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교육과 훈련의 제공, 고용 및 노동시장으로의 연계가 목적 •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상자를 좁힐 수 있음 •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등을 사업지원대상으로 확장하여, 기존의 직업재활 욕구가 있는 이용자들이 농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필요
교육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활동이나 농촌경관에 대한 경험 제공 • 아동/청소년 영역에서 주로 활용 가능

국내 사회적농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적용방안

농업인이 사회적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모하는 단계적 접근 부재

- 사회적농업지원사업에 따른 사회적농업의 정의: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을 통한 돌봄, 교육, 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
- 즉, 이미 사회복지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인이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있거나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가야한다는 것을 의미
- 한편 일본 사례를 살펴보면
- 농업경영체의 경우에는 사회적약자나 복지적 접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복지사업소의 경우에는 농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
- 이는 농업인이 사회적 약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반대로 복지측이 농장을 직접 설치하여 복지와 농업 두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줌
-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조직에서 자체적으로 복지적 기능을 보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구조
- 농업조직이 독자적으로 유기적인 돌봄, 교육,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 복지적 관점에서의 이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는 대상임

국내 사회적농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적용방안

농업인이 사회적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모하는 단계적 접근 부재

- 따라서 단계적 접근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사회적농업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 아닌 '사회적농업을 희망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일본 농복연계는 장애인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나, 국내는 전반적 사회적약자로 확장되므로 초기단계 관련 교육 및 복지자원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
-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후 단계에서 농업조직이 사회적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성 고려, 관련 설비와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
- 또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조직들과의 협의, 자문, 견학, 시범 등이 제공되어야 함

국내 사회적농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적용방안

복지영역에서의 농업활동에 대한 수요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사회적농업지원사업의 사업대상은 농업조직
 -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영역 조직들에서도 최근 농업활동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
 - 특히 복지서비스가 불충분한 농촌지역에서는 농업활동을 활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복지적 효용이 더욱 커질 수 있음
- 따라서 사회적농업지원사업의 사업대상을 복지조직으로 확장 필요
 - 동시에 복지조직에 대한 농업적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
 -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
 -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문제 해결을 동시에 꾀해볼 수 있음

국내 사회적농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적용방안

지역서비스 공동체의 형성을 민간의 역할로 두고 있음

- 사회적농업지원사업은 '지역서비스공동체'를 사업대상 중 하나로 포함
 - 지역서비스공동체란: 사회적농장을 비롯하여 농촌주민, 지역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서비스 업체 등으로 결합된 공동체와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조직
 - 즉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공동체를 구성하여 코디네이터 역할 및 네트워크 협력을 수행
- 한편 일본 사례를 살펴보면
 - 사회적농장은 복지기능과 농업기능을 모두 수행하여야 하므로, 부족한 기능은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보완해나감으로써 필수적 요소임
- 따라서 사회적농장의 장기 유지를 위해서는 관 주도 네트워크가 필요
 - 일본의 경우, 관내 농복연계 활성화를 위해 초기에는 행정주도형 네트워크를 형성
 - 그 내부에서 농업-복지 조직 간 간담회, 사업설명, 교육, 시범활동, 견학회, 마켓 개최 등의 활동을 지원
 - 거점농장이나 지역서비스공동체와 같은 민간에 그 역할을 일임하기 보다는 농촌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

국내 사회적농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적용방안

사회적농업의 이용유형 다양성이 부족

- 현재 사회적농장지원사업은 주로 이용자가 직접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국한
- 궁극적으로는 이용자의 직접 농업활동 참여가 주요 목적이 되어야 하겠으나
- 이는 초기투자가 크고 양적 성과를 이루는 데에 어려움이 뒤따름

- 일본 사례와 같이 이용방식을 다양화한다면 더욱 많은 이용자가 직, 간접적으로 농업활동 참여 가능
- 현재 사회적농장지원사업에서 주로 지원하는 직접적 농업활동을 '직접참여형'이라고 한다면
- 복지시설의 이용자가 인근 농장을 방문하는 방식을 '시설외 참여형'
-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직접 농장을 방문하지 않고 시설 내에서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내 참여형' 등
- 이용방식 다양화를 위해서는 복지조직, 농업조직을 비롯한 다양한 단위들과의 연계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함

국내 사회적농업 지원제도의 한계점 및 적용방안

여타 부처와의 협력 부족

- 사회적농업은 '혼종성'을 갖는 다기능 농업임
- 농업영역과 여타의 영역(고용, 복지, 교육 등)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천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
- 그러나 사회적농장지원사업의 경우 농림부 재정과 전달체계 중심으로 실행, 관련 부처와의 협력은 미흡

-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이 관여하는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법정계획에 사회적농업확산전략을 반영하는 노력 필요
- 각 부처별로 주관하는 사회보장사업과 연계한다면 사회적 농업의 혼종적 실천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
- 중앙행정기관들이 사업설계 초기부터 협력하여 자원과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한국 사회적 농업의 현주소와 보건복지 적용 가능성

김정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 사회적 농업의 현주소와 정신장애인 참여 사회적 농업에 관하여

김정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과

‘불리한 여건에 놓인 사람들the disadvantaged’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것은 모든 정책 영역에서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농업정책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그것이 2018년에 시작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83개 농장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3년 현재 90여 개의 농장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거나, 공공 부문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들에게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장들이 사회적 농업을 대표하는 집단이라고 인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 확산 지원사업의 개요

세부 사업 내용	지원 내용	비고	
사회적 농장	▶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을 지원	▶ 개소당 6,000만 원 이내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시설비	▶ 2018년 9개소→2022년 83개소
거점 사회적 농장	▶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련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 개소당 2억 원 ▶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비, 시설비	▶ 2020년 3개소→2022년 7개소
지역 서비스공동체	▶ 농촌 주민, 보건소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 업체 등과 결합하여 서비스공동체 단위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고령자 돌봄, 교육, 건강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	▶ 개소당 9,000만 원 (코디네이터 활동비 3,000만 원 포함) ▶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	▶ 2022년 신규 22개소

연구를 시작했던 2022년 늦봄에 자료를 수집해 계산했습니다. 참여자가 농작업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이라고 잠정적으로 부르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사회적 농장 60곳에서 총 231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농장에 따라 1~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셈입니다. 231개 프로그램 중 가장 많았던 것은 ‘돌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15개로 전체의 49.8%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교육 프로그램’(87개, 37.7%), ‘일자리 프로그램’(29개, 12.5%)의 순이었습니다. 이 자료에서 정의한 각 활동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돌봄’과 ‘교육’이 그리고 ‘교육’과 ‘일자리’가 명확하게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 ▶ 돌봄: 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농업활동을 매개로 하는 돌봄을 제공하는 활동.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은 참여자가 농민과 함께 농작업 및 농업생산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업에 참여하고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는 등의 활동.
- ▶ 교육: 농업을 시작하려는 귀농 청년·여성 등에게 농업을 실천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관하여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
- ▶ 일자리: 사회적 농장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참여자의 농업 분야 취업 또는 창업을 돕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으로서 농업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

60개의 사회적 농장에 연인원 63,468명이 찾아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누적 시간으로는 약 25만 시간쯤 되었습니다. 참여자 1명이 농장에 갈 때마다 평균 4시간 정도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한 셈입니다. 실제 참여자 수는 대략 3,000명에서 4,000명쯤 되리라 짐작합니다. 적지 않은 수입입니다. 전체 참여자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명의 참여자가 연간 몇 회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참여자와 사회적 농장의 농민이나 이웃 주민 사이에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긍정적인 결과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한 명의 참여자가 월 평균 1회 미만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뜻밖에도 많았습니다. 특히 ‘돌봄’ 분야의 사회적 농업 활동에서 그 비율이 55.1%나 되었습니다.

사회적 농업 활동 프로그램의 유형별 참여 횟수 분포

단위: 개

분야	연 12회 미만 (월 1회 미만)	연 12~24회 (월 1~2회)	연 25~52회 (1주~2주 1회)	연 53회 이상 (주 1회 이상)
교육 (N=84)	31 (36.9%)	24 (28.6%)	14 (16.7%)	15 (17.9%)
돌봄 (N=127)	70 (55.1%)	30 (23.6%)	19 (15.0%)	8 (6.3%)
일자리 (N=13)	1 (7.7%)	2 (15.4%)	6 (46.2%)	4 (30.8%)
전체 (N=224)	102 (45.5%)	56 (25.0%)	39 (17.4%)	27 (12.1%)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22), “2021년 사회적 농장 활동 실적”, 미간행.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회적 농업은 손님만 장애인으로 바꾼 일회성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이 아닙니다.”¹⁾ 사회적 농업 활동을 보다 정규화된, 즉 더 규칙적이고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적 농업 참여자의 편익: WHODAS2)

장애인이거나 노인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농장을 방문해 사회적 농업, 그 중에서도 돌봄 농업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여럿입니다. 주로 질적 연구 qualitative study를 통해 묘사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양적 분석 결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WHODAS 2.0 판본을 적용해 사회적 농업 활동 참여자의 건강 및 장애 측면 개선 효과를 측정해 보았습니다.³⁾ WHODAS 2.0은 ‘인지(이해하기와 대화하기)’, ‘이동(이동하기와 돌아다니기)’, ‘자기관리(개인위생, 옷 입기, 먹기 및 혼자 지내기)’, ‘어울리기(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기)’, ‘일상활동(가사 역할, 여가, 직장 및 학교)’, ‘참여(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등의 여섯 가지 생활영역에서 기능 수행 정도를 확인하는 측정 도구입니다. 참여자 86명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상순에 1차 조사를 진행하고, 11월 하순~12월 상순 사이에 2차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일한 참여자의 1차 및 2차 조사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 참여자의 건강 및 장애 측면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사회적 농업 활동 참여의 긍정적 효과: 1차 및 2차 조사의 빈도 차이

단위: %p, %

항목	긍정적 효과량 (%p)	타 영향을 고려한 긍정적 효과량 (%p)	표본 전체에서 비율(%)		
			어려움 완화됨	그대로임	어려움 심해짐
S1) 30분 동안 서있기와 같이 장시간 서있기	46.5	48.3	29.8	59.5	10.7
S2) 집안일 처리하기	38.3	12.1	27.1	50.6	22.4
S3) 새로운 과제 배우기(예: 새로운 장소로 가는 법 배우기)	24.4	4.4	23.2	50.0	26.8
S4)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활동(예: 축제, 종교 등의 활동)에 참여하기	51.2	15.3	28.2	45.9	25.9
S5) 건강상태가 본인의 정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44.2	6.2	35.3	36.5	28.2
S6) 10분 동안 무엇인가에 집중하기	40.0	37.1	21.4	65.5	13.1
S7) 1km와 같은 장거리 걷기	44.4	41.1	27.1	64.7	8.2
S8) 몸 전체 씻기	48.3	42.2	20.2	65.5	14.3
S9) 옷 입기	59.1	47.7	16.5	70.6	12.9
S10) 낯선 사람 대하기	22.7	-2.7	21.7	57.8	20.5
S11) 친구 관계 유지하기	27.0	17.1	19.3	59.0	21.7
S12) 일상적인 직장/학교 생활	38.5	33.1	26.8	52.4	20.7

주1) ‘긍정적 효과량’이란, 1차 조사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에 한정하여, 조사 기간 중에 어려움이 완화된 사람의 비율에서 어려움이 심해진 사람의 비율을 뺀 값이다.

주2) ‘타 영향을 고려한 긍정적 효과량’이란, ‘1차 조사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 중 어려움이 완화된 사람의 비율’에서 ‘1차 조사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 중 어려움이 심해진 사람의 비율’을 뺀 값이다.

자료: 설문 조사.

표에서 보듯이, ‘타 영향을 고려한 긍정적 효과량’은 ‘낮선 사람 대하기’ 항목을 제외한 11개 항목 모두에서 그 값이 양(+)이었습니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의 간격이 약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사회적 농업 활동 참여의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목 간의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가령, ‘옷 입기’, ‘몸 전체 씻기’, ‘1km와 같은 장거리 걷기’, ‘30분 동안 서있기와 같이 장기간 서있기’ 같은 이동이나 자기관리와 관련된 영역의 항목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보인 응답자가 보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40%를 넘었습니다. 달리 말해, 사회적 농업 활동에 몇 달 이상 꾸준히 참여하는 이들 10명 중 4명 이상은 위의 항목들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비해 ‘낮선 사람 대하기’는 단순한 긍정적 효과량은 22.7%p였지만 ‘타 영향을 고려한 긍정적 효과량’은 오히려 -2.7%p여서 사회적 농업 활동 참여가 그다지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새로운 과제 배우기’와 ‘정서적 영향’의 항목에서 긍정적 ‘타 영향을 고려한 긍정적 효과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시사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장활동이 신체의 움직임을 자극하기 때문에 건강상에 혹은 집중력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크게 낳는다는 점입니다. ‘이동’, ‘일상활동’, ‘자기관리’ 측면에서 가장 큰 긍정적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⁴⁾ 다른 하나는 현재 한국에서의 사회적 농업 실천이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사회참여’나 ‘어울리기’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외국의 논의에서 ‘사회적 연결’이 사회적 농업의 중요한 효과로 거론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뜻합니다.

사회적 농업 활동에서 대화 등의 의사소통 활동이 더욱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실천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소수의 농민이나 관계자와 다수의 참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억제하여, 동시 참여자 수를 줄여서 농장 활동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장 활동 참여의 빈도(회차)를 늘리고 참여일 사이의 간격을 줄여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밀도를 높여야 합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당면 과제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당면 과제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사회적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프로그램)을 농장활동 참여자 개인에게 더욱 초점을 맞춘 형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 농업 실천이 본래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회적 농업의 효과성을 들어 지지를 호소하는 데에도 필요한 일입니다. 우선 사회적 농업 활동에 동시에 참여하는 인원이 과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지원 정책사업의 지침을 통해 권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여자의 구체적이고 특별한 필요에 부응하는 농장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할 터입니다. 당연히 사회적 농업 활동 프로그램 기획, 실행, 평가 등과 관련하여 수준 높고 실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농업을 더욱 확산하고 성과를 제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군 수준에서 사회적 농업을 알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학습 과정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그런 기반 위에서 사회적 농장이 지역 내 보건·복지·교육 등의 비농업 부문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평가하는 사례를 만들어내고 확산해야 합니다. 사회적 농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는 지원사업을 개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규 사업 신청을 준비하는 농장에 충실한 안내를 제공하고, 그 농장들의 학습을 도와야 합니다.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직 사회적 농업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농업 관련 간행물 등 텍스트 자료를 다양하게 발간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더욱 심화된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사회적 농업 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이 지원사업을 잘 관리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선정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실행 역량을 갖춘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예: 거점농장 대표자와 이해도 높은 전문가의 현장 실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기명(記名)으로 평가 의견 제출, 현장 심사위원의 사전 학습 실시). 지원사업 대상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운영 일지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매년 말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평가에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과 농업인과 지역사회 등 관련된 이들에게 어떤 편익이 있는지를 질적·양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정례적으로 실시한다면, 사회적 농업 확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발제문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앞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몇 년 동안 진행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작은 보조금 정책사업의 경과와 그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루는 내용의 배경이 될 만한 정보를 소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발제문을 중심으로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정부 부처 간 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농업이 혼종적 성격을 갖는 실천이라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 등 여러 부처 사이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될 때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발제문의 끝부분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협력이나 연계의 의지가 아니라 세부^{detail}에 있다고 봅니다. 발제자께서는 각 부처별로 주관하는 사회보장사업과 연계한다면 사회적 농업의 혼종적 실천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제안하셨는데, 그 ‘연계’의 구체적인 모습을 만들어 내려면 부처 간의 밀도 높은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가 전국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바우처 사업’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계기로 농장을 찾는 이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입니다. 사회적 농장이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가 적용되는 ‘지원기관’ 내지는 ‘협력기관’이 된다면, 그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겠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 차원으로 가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충청남도에 주간활동 지원센터가 있지만, 농촌 시군에 이 센터와 연결되어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달에 132시간(기본형)을 전제로 하는데, 농업 활동을 한달에 132시간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은 시설에 거주하거나 주간보호시설에 다니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사회적 농장에 오가는 발달장애인의 다수는 해당 시군의 주간보호시설에 다니는 이들이 1~2주에 1회 농장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연계가 이루어지려면 실무 차원의 밀도 높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중앙정부 부처 간의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져 제도를 개선하거나 만들면 상황이 좋아질까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중앙에서의 소통과는 별개로 농촌 현장에서의 소통이 그만큼 뒷받침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막상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농업 부문과 비농업 부문의 협력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 수준의 제도적 노력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의 소통과 협력은, 정신장애인의 경우, 무엇보다도 '장애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편견이 가득한 상황에서, 지금도 어느 농장에 정기적으로 장애인이 방문하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주민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것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 행정 부문의 '칸막이 문화'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사업이나 제도가 적용되는 순간, 공공기관은 '누구의 업무 영역이냐'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과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쪽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쉽게 일어납니다. 현재로서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농업에 헌신적인 농업인과 보건의복지 분야의 직능 종사자들이 함께 (그것이 1~2주에 한번 방문하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사회적 농업 실천을 기획하고 지속 실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2) 사회적 농업의 이용유형 다양성 부족 문제 제기에 관하여

발제문에서는 '현재 사회적 농장 지원사업은 주로 이용자가 직접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국한되어 초기 투자가 크고 양적 성과를 이루는 데에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 농업 '이용자'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농장이 장애인 등에게 이용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농촌 지역사회에 흔한 농업활동에 어느 농민과 마찬가지로 참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농민-정신장애인의 관계는 '서비스 제공자-이용자'의 관계가 아니라 '농사를 매개로 만나고 무언가 활동을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이웃' 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사회적 농업과 관련하여 '이용자', '고객', '대상자'라는 표현보다는 '농장활동 참여자'라는 표현을 권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이 농업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사회적 농업'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튼 발제자의 주요 주장은 한국의 사회적 농업도 일본처럼 다양한 형식의 운영 주체가 있고 그 모든 형식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이해했습니다. 가령 복지시설의 이용자가 인근 농장을 방문하는 방식, 즉 '시설외 참여형'이나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직접 농장을 방문하지 않고 시설 내에서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내 참여형' 등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여겨집니다. 사실은, 위와 같은 개념을 따른다면, 현재 사회적 농장을 방문하는 정신

장애인이거나 발달장애인의 활동 유형 중에는 이미 ‘시설외 참여형’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내 참여형’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없지만, 간혹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농업을 통해 성과를 거두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수준 높고 규모가 큰 지원이 보건복지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오히려 보건복지부의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념상 사회적 농업을 실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급한 문제는 ‘이용유형 다양성’이 아니라, 지원 정책의 양적 규모가 적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3) 복지영역에서의 농업활동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대상을 복지조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관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의 여러 복지 조직이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등에게 일정한 편익을 제공하려는 경우, 현재로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사업이 직접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지 조직이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농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수행 단위를 농업법인 등의 형태로 조직하여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복지조직’을 배제했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농촌에서 농업활동을 수행할 복지조직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조직이 없는 곳에서 농민들이 농업이라는 본업을 하면서도 ‘돌봄’, ‘교육’, ‘고용’ 등에 나서는 어려운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것을 지원하려는 정책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실이 문제를 놓고 보면, 보건복지 쪽에서는 농업에 그리고 농업 쪽에서는 보건복지 쪽에 서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셈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쪽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기보다는 ‘역할은 다르지만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자’고 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 농업 실천이 지향하는 ‘포용’이나 ‘통합’의 가치를 전제로 한다면 ‘농민과 정신장애인이 함께 만나 함께 농사짓고 이야기 나누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차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옳습니다. 농작업 그 자체가 주는 건강상의 편익도 크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복지시설이 담장 안에서 텃밭을 가꾸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농업이라고 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최소한 그 복지시설에 본업이 농업인 농민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농작업을 함께하는 정도의 조건은 갖추어져야 할 터임

니다. 아니면 거꾸로 복지시설의 장애인들이 시설의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와 함께 이웃 농장을 찾아와 그곳의 농민과 함께 농사짓는 활동을 해야 할 터입니다(이 장면이 현재 사회적 농업이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4) 농업인이 사회적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모하는 단계적 접근이 부재하므로 이를 개선하자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미 사회적 농업을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희망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백퍼센트 공감합니다. 사실 사회적 농업을 잘 모르는 이들과의 네트워킹이나 정보 제공이 부족합니다. 다만, 이렇게 된 것은 ‘단계적 접근’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투입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농촌 시군 현장에서 농업인과 비농업부문 종사자들에게 사회적 농업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리려면 포럼, 교육, 학습회, 설명회 등 수많은 계기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인데,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부족하고,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5) 제안: 농촌 현장에서 농업-비농업 소통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 농업 활동 실험 프로젝트

끝으로 작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사회적 농업’이라는 실천이 6년 전에 비하면 제법 알려져서 보건복지계에서 토론을 주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농업과 비농업 부문이 중앙정부 수준에서 제도를 놓고 협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상응하여 현장에서 협력하는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공전뿐만 아니라 지상전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쉽게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만, 농림축산식품부나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만의 힘만으로는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 시군에서 농업인과 비농업 부문의 종사자들이 사회적 농업을 함께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실천(즉, 사회적 농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지원사업입니다. 현장에서 서로 다른 분야의 종사자들이 만나 포럼을 형성하여 사회적 농업 실천을 기획하고 실행하기까지의 과정을 정부가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생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너무 적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그런 활동을 돕는 프로젝트를 실험적으로 진행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 1) 사회적 농업이 일회적인 농업 체험이 아니라 참여자의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과정을, 연구 중에 만난 어느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처음에는 그냥 약간 ‘무슨 체험하는 건가 보다’, 그냥 그렇게 약간 가벼운 개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농사] 기술을 익히고, [참여 기간도] 길게 해서, 막 무언가 이제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와서, 딸기농장 체험처럼, 그런 식으로 체험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농장] 대표님이랑 계속 얘기도 나누고 소통도 하다 보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죠.”(○○ 사회적 농장과 협력 관계에 있는 인근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K씨).
- 2) World Health Organization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 ‘세계보건기구 장애평가목록’이라고 번역됩니다.
- 3) 이 글에서 소개하는 WHODAS 조사 결과가 사회적 농업 실천의 참여자 편익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농업을 어떤 식으로 실천하는 것이 참여자에게 더 큰 편익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에는 더욱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처럼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이라면 의회, 예산 당국, 언론 등에 정책의 효과를 숫자로 설명할 것을 요청받을 때가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같은 국제기구가 개발한 양적 지표의 권위를 빌려,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회적 농업 참여자의 편익을 살펴본 실험적 시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4) WHODAS 2.0의 측정 도구는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점수를 내어 설명하면, 특히 이번처럼 시간에 따른 변화를 비교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그러나 통계학적 엄밀성을 유지하려면, 36항목으로 구성된 판본으로 조사할 경우에만 영역별 점수 계산이 허용됩니다.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36문항에 응답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12문항 판본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 점수를 별도로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본문에 서술한 것처럼, 영역에 따라 문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상활동(‘집안일 처리하기’, ‘일상적인 직장/학교 생활’), 이동(‘30분 동안 서있기와 같이 장시간 서있기’, ‘1km와 같은 장거리 걷기’), 인지(‘새로운 과제 배우기’, ‘10분 동안 무엇인가에 집중하기’), 사회 참여(‘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건강상태가 본인의 정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자기관리(‘몸 전체 씻기’, ‘옷 입기’), 어울리기(‘낯선 사람 대하기’, ‘친구 관계 유지하기’).

3

사회적 농업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개발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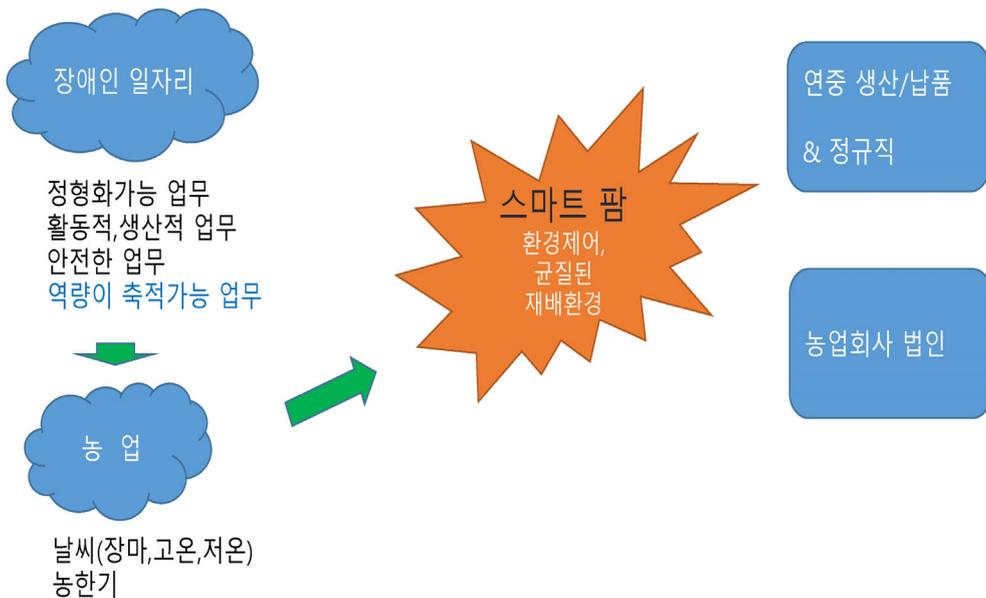
김병두 대표
(푸르메소셜팜)





법인 설립

발달장애인 일자리 고민에 대한 대안





발달장애 청년의 부모 이상훈·장춘순 부부,
30억 원 상당의 농장부지(11,800㎡) 기부
"장애청년을 위한 희망의 일터를 만들어
주세요."



부지 인근에 위치한 SK하이닉스,
50억 원 기부 및 생산품 구매 협약
"낮선 길에 힘이 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여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 동참으로
유리온실 건립 지원, 신재생에너지 국책사업 확보 등
"가장 어려운 이를 위한 연대의 손길"

법인 현황

법인 현황

농업회사법인
푸르메소셜팜
주식회사

- 푸르메재단(54.5%),SK하이닉스(35.5%),농업인(10%)
- 장애인 표준 사업장(22.12.8)

푸르메여주팜
주식회사

- 2020년 10월 1일 설립
- 푸르메소셜팜(50%),지역난방공사(30%),여주시(20%)
- 국내최초 주)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21.3.23)
- 경기형 예비 사회적 기업(22.12.)

◆ 푸르메 소셜팜 사업 내용 -관광농원

- ✓ 농·임산물의 구입·가공·포장·유통
- ✓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 대행
- ✓ 식품제조·판매업
- ✓ 농어촌 관광 휴양 산업 (카페,베이커리,체험, 교육프로그램 등)

장애인 일자리 협력 현황

설립/건립

운영



/개인,기업등

푸르메 소셜팜 출자, 모금

판로지원, 모금



푸르메소셜팜 출자, 기부

판로 지원



판로 지원, 상품개발/디자인 지원



푸르메여주팜 출자

물품구입,기부



푸르메여주팜 출자

장애인청년사회적농업취업형인턴십, (21,22,23)
청년일자리창출지역포용형 일자리사업(3년간))



표준사업장 무상지원,용자지원

고용장려금,근로(직무)지도원,
교육훈련,채용지원

법인 현황

소셜팜 및 여주팜의 사회적 가치

	여 주 팜	소 설 팜	합 계	비 고
고용 효과 (장애인)	42명	11명	53 명	23년: 55명
고용 효과 (비장애인)	2명	5명	7 명	카페인력 10명 별도
고용 효과 (비장애인: 근로지원인 등)	10명	2명	12 명	
지역농가 협업	Local Food 납품, 지역농가 협업, 카페내 파머스마켓			
지역사회 협업	장애인 인식 개선, 자원봉사, 학교 봉사, 시니어 일자리			
지역사회 기여	5가구 전입, 여주 시민 공간, 문화 교류, 여주 홍보(타시도 참관, 언론홍보 등)			
정성적 효과	자신감, 만족도, 가족의 여유(경제적, 시간적)			

주요 현황

인원 현황

◆ 현 임직원수 : 60명

✓ 발달장애인 직원 : 53명(4시간 근무) (비장애인 직원 : 7명: 13%)

✓ 근로 지도원 3: 10.5명 (직무지도원 1명 별도)

주: 장애인고용공단 지원 인력

◆ 채용 경과 및 계획-WITH 장애인고용공단

✓ 20년 12월 : 15명 입사

✓ 21년 5월 : 11명 입사(직무테스트 추가)

✓ 21년 6월 : 8명 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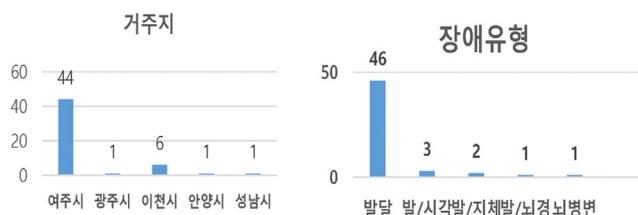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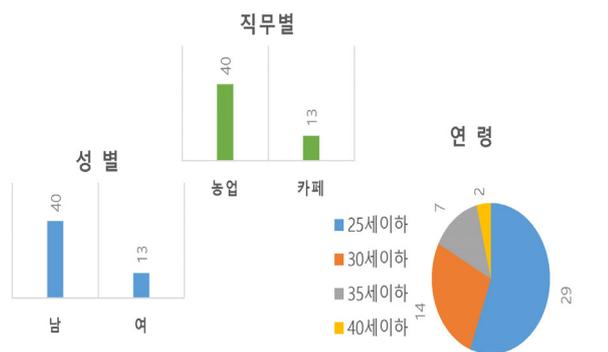
✓ 21년 8월 : 4명 입사

✓ 22년 7월 : 7명 입사

✓ 22년 10월 : 7명 입사

✓ 22년 11월 : 3명 입사

✓ 23년 카페 운영 상황 및 온실 증설에 따른 채용 예정



-울산,시흥,구미,경기 광주,대구 각1명 전입

직무 면접 전형



◆ 리프트 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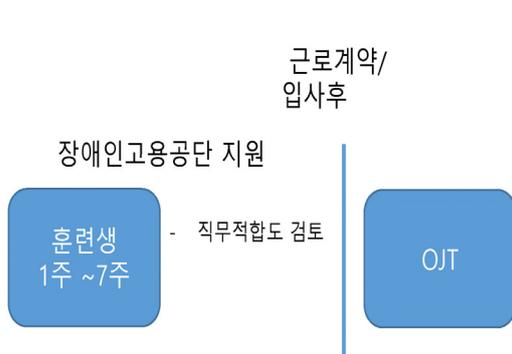
◆ 포장하기



◆ 포장하기

훈련 과정

면접 합격 후



◆ 훈련/직무배치 원칙

- ✓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무를 찾고 배려하고, 지원한다

시설 현황

토마토 재배 현황

- ◆ 면적 : 약 1,800평 (총 3동; 유리온실2동, 비닐온실1동)
- ◆ 품 목 : 대추형 방울토마토
- ◆ 재배 작기 : 약 6 개월
- ◆ 수확 시기 : 연중 (단, 정식후 2개월 소요)
- ◆ 친환경 재배방식
 - 양액 재배 방식으로 벌을 이용한 자연 수정
 - 퇴비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천연야자 열매로 만든 배지 사용
 - 농약 대신 친환경 작물보호제 제한적 사용
 - 신재생 에너지(지열, 태양열) 사용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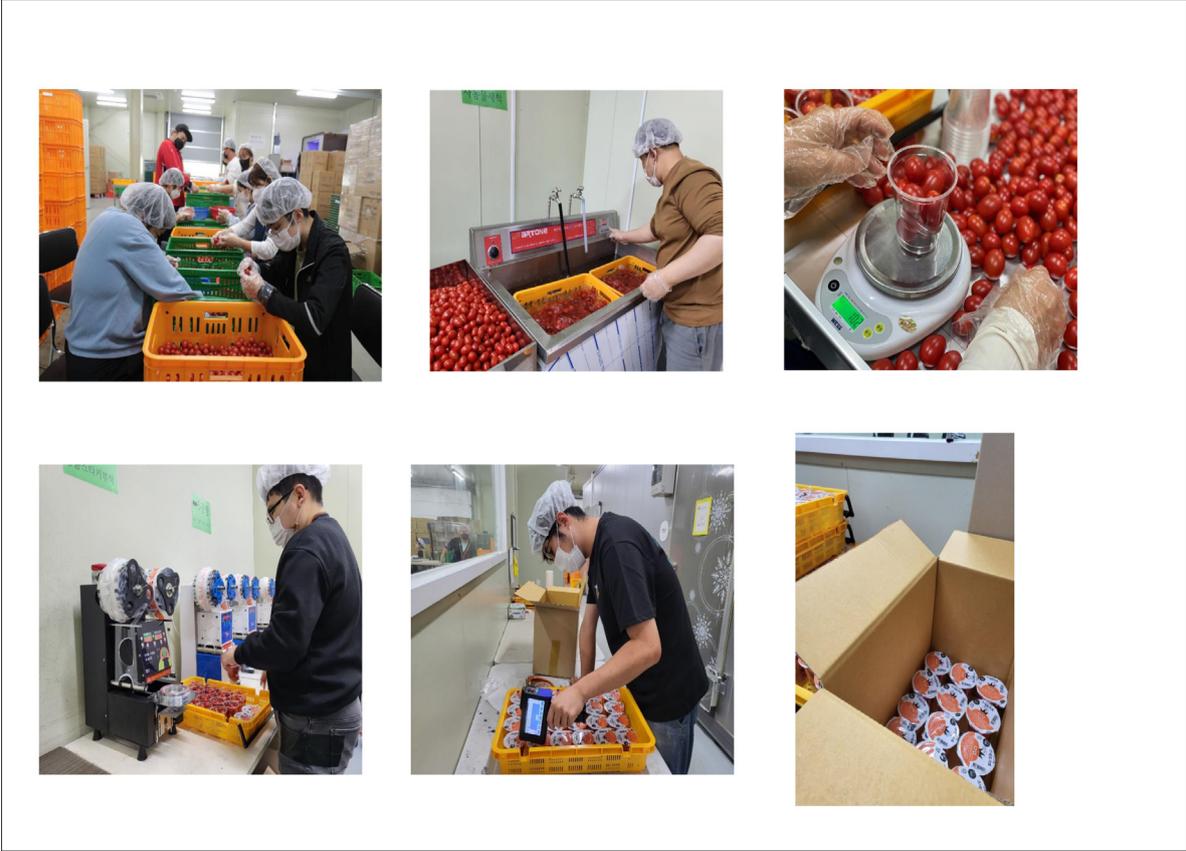
토마토 직무 분석

• 장애직원 업무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묘(외주) • 정식(모종심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액 공급, 방제(전문가, 시스템) • 채광/온도조절(전문가, 시스템)
(벽면, 천장 개폐 등) • 결순 제거 • 유인줄 작업 (매달기, 옮기기, 결속) • 청소 • 수정 (명예직 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확· 선별· 세척· 포장 • 택배 발송 • 배송 (자체 or 외주) • 철거 • 소독 |
|--|--|--|





시설 현황

버섯 재배 현황

- ◆ 면적 : 454.30㎡, 약 138평(총 2개동)
- ◆ 품목 : 표고버섯
- ◆ 입상 규모 : 6천 봉 (봉형재배)
 - 봉형재배 : 배지를 눕혀, 전 부분에서 버섯 재배
 - 참고:상면재배 : 배지를 세우고, 윗부분을 개봉해 버섯 재배
- ◆ 기타 설비
 - 온도조절, 살수, 안개 시설 자동화
 - 냉풍 자연 제습 건조기 : 향, 맛, 영양분을 최대한 보존
- ◆ 작물 특징
 - 갓이 넓고 두꺼우며 조직이 단단하여 저장성 우수
- ◆ 재배 작기 : 4개월



운영 현황

버섯 직무 분석

• 장애직원 업무



- 배지제작(외주)
- 균 접종
- 입상(재배사 이동)



- 온도 조절(전문가, 시스템)
- 발수 or 침봉
- 측발이 제거
- 숙기
- 청소



- 수확·선별·컷팅·건조·포장
- 택배 발송
- 배송 (자체 or 외주)
- 폐상



운영 현황

직원 처우 등

- ◆ 최저임금 (1,010,100원/월)
- ◆ 4대보험, 퇴직연금
- ◆ 단체상해 보험 가입
- ◆ 중식지원 (월10만원 → 현물제공, 2만원)

근무시간

- ◆ 오전 근무자: 08:30 ~ 13:00 (30분 휴식)
- ◆ 오후 근무자: 13:30 ~ 18:00 (30분 휴식)

서틀운영

- ◆ 여주역, 여주시청, KCC, 오학사거리와 경로 중 몇 곳

주요 실적·상품기획

브랜딩 및 상품기획

CI



BI



'오늘도'는 평범해서 더욱 소중한 농장의 일상을 의미합니다.
하루하루 커가는 농작물을 돌보는 장애청년 농부들의
즐거웠던 어제와 기대하는 내일 사이, 오늘을 함께하는
푸르메소셜팜의 농산물 브랜드입니다.

캐릭터



방울토마토 90g -SK하이닉스 식당 방울토마토 500g- GS리테일 생 표고버섯500g



방울토마토 750g



표고버섯선물세트240g



표고버섯선물세트350g

향후 신규 사업



대상 청년 농부에 관심있는 발달장애인 누구나
기간 1년 내내 언제나
인원 10명 ~ 30명 내 단체인원
프로그램

토마토 재배 유리온실에서 저온 토마토를 수확하고 포장해 보여요	버섯재배 청징 지하수로 키운 버섯을 수확하고 포장해 보여요	바리스타, 제과제빵 빵과 쿠키를 만들고 커피도 직접 내리 보여요	토마토 가공하기 수확한 토마토를 더 맛있게 만들어 보여요	직장 마티베키 회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터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요
--	--	---	---	--

*세부 프로그램 및 일정 협의가능
 *신청방법 : 전화문의(010-9355-1458, 기획팀장) 참가비 : 25,000 ~ 35,000원(협의가능)

안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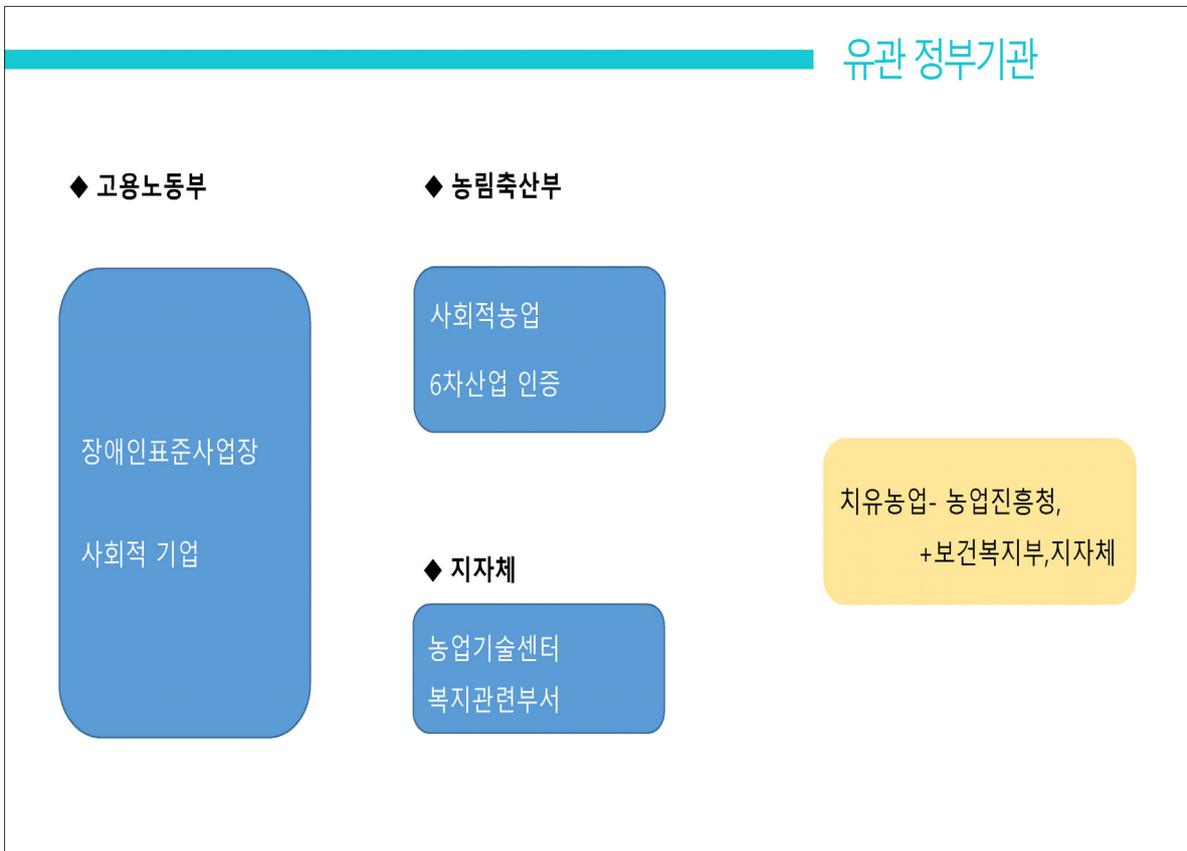
우리 농장음
 발달장애 청년농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행복한 일터로 스마트팜을 기초로 토마토와 버섯을 재배하고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여 장애 청년 농부들이 사회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스마트 농장입니다

농장안에는
 1,500평 규모의 첨단 스마트팜 유리온실, 140여평의 버섯재배동이 있고 차량 100여대의 주차공간, 쾌적한 편의시설(화장실, 세면대 등)과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실내에서 진행되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장애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체험과 힐링을 위한
 농부와 제빵, 바리스타 등 다양한 체험과 잔디공원(140평)의 500평 규모의 힐링공간에서 여유와 행복을 가지는 카페를 동시 이용 가능합니다(카페 이용 시 10% 할인권 증정)

농장위치

회사소식
 홈페이지
<https://pumesocialfarm.modoo.at>
 블로그
<https://blog.naver.com/purmefarmyeoju>
 푸르메 재단
<https://purme.org>



4

사회적 농업을 통한 정신장애인의 직종 개발의 가능성

이정주 센터장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사회적 농업을 통한 정신장애인 직종 개발의 가능성

이정주 센터장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1. 들어가는 말

세계 각국이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 정신적, 인지적 장애인을 위한 직무, 직종, 직업훈련 등 이른바 정신장애인 고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농업 강국의 면모를 살려 호그백(Hogeweyk) 마을, 스코럴발트(Scorlwald) 등 1,100개소 케어팜(Carefarm)이 있고 이 중 20여 개소는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케어팜이다. 유럽 전체를 보면 노르웨이(1,100개소), 이탈리아(700개소), 벨기에(595개소), 프랑스(500개소), 아일랜드(133개소), 독일(162개소), 오스트리아(250개소) 정도의 케어팜이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케어팜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유럽에서는 보편적인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석하자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치매 등 심신취약자를 위한 치유목적을 우선하지만, 그 외에도 농업과 관련된 많은 직종, 직무 즉 일자리가 있다. 특히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하여 다양한 일거리가 주어진다든 점에서 케어팜 플러스 일자리 마을이라고 볼 수 있다. 스코럴발트 마을에는 100여명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농장일 뿐 아니라 악기 공방, 제과점, 레스토랑에서 근무한다. 사회적 농업은 장애인을 위해서는 두가지 기능을 갖는다. 하나는 '장애인을 위한 치료 (Therapy for PWD)' 또 하나는 '장애인의 일자리(Work of PWD)'가 존재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스코럴 발트와 같은 마을이 그런 것이다. 스코럴발트 보다 더 유명한 사회적 농업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캠프힐(Camphill)이다. 캠프힐은 주거, 치료, 교육, 일자리, 교육 등 장애인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의 주 업종은 농업이다. 농업을 기반으로 장애인 복지와 고용의 통합 공간, 사회적 농업기반의 대표적인 직종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법제적 지원체계 확보

스크럴 발트, 캠프힐이 가능한 것은 각국의 다법제적 부처간(농업,복지,고용,경제 등) 콜라보레이션이다. 네덜란드 경우 케어팜이 급속히 확대한 것은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는 그린케어(greencare)

정책 때문이다. 그린케어 정책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 및 회복시키기 위해 농업과 농촌의 역할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정신질환자, 신체장애인, 사회 부적응자, 기타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의학적, 사회적 치료가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농업적 농촌적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며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 곧 케어팜이다. 케어팜은 농업생산활동(farm)과 사회적 돌봄(care)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개인농가나 민간조직, 의료, 보건 시설 등에서 농장 전체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그린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케어팜은 종래의 농업 생산활동에만 집중되었던 것에서 건강 사회 재활 치료, 교육적 서비스를 파생시켜 농업의 다기능(multi-functional agriculture)을 실현하면서 네덜란드 농촌에 새로운 수익모델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5년 사회지원법(WMO; Wet Maatschappelijke Ondersteuning)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케어팜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재량권을 갖게되면서 네덜란드 전역에 케어팜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장기요양보험제도(WLZ; Wet langdurige zorg), 청소년보호법법(JW; Jeugdwet), 건강보호법(ZVW; Zorgverzekeringswet)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증치매, 중증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 장애를 가진 청소년, 청년, 만성질환자 등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마치 장애인을 위한 케어팜인 듯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린케어정책과 케어팜은 건강, 일자리, 사회서비스 모든 면에서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또한 위와 같은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처간의 유연한 협력체계가 돋보인다. 산업은 농업 부처, 장애인 등 대상은 복지부처, 재정은 경제부처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린케어, 케어팜을 위한 세부처의 협력은 마치 한몸같이 움직인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네덜란드는 6차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치료와 일자리가 동시에 생성되는 산업으로 정신적 장애인에게는 매우 유효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도 한창 6차 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분투 중이지만 농수산부, 복지부, 고용부, 기재부, 교육부처가 각각 따로따로 더딘 발걸음만 내딛는 것으로 보여진다. 네덜란드의 부처간 협업이 대단해 보이는 것은 남다른 부처간 칸막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이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사람 중심의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부처간 유연한 제도적 콜라보레이션이 절실하다.

3.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무 개발

과거에 비해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생계급여 비율, 국민건강보험 가입률, 국민연금 또는 사적연금 가입률로 살펴봤을 때 여전히 낮은 추세이다. 또한 정신장애인

스스로 사회적으로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 81.0%, 2014년 81.5%, 2020년 89.6%로 전체 장애인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했고,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 구직활동 경험 및 근로 의향은 감소하였으며, 근로시간 및 평균 취업시간, 평균임금, 근속기간 등을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타 장애유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도보배달원, 온라인상품정보원, 도시양봉가, 동료지원가 등 새로운 직무를 꾸준히 개발하였다(박종빈 등, 2022). 정신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대표적인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동료지원가의 경우 동료지원가 활동을 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임파워먼트 향상, 동료지원가 서비스를 받은 당사자 들에게는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관계 형성, 개별적인 욕구 충족, 고립으로부터의 탈피, 자신감 형성, 삶의 동력 형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경희, 2020; 우소현, 2020). 앞으로 정신장애인의 성향이 충분히 고려가 된 직무가 좀 더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¹⁾.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낙인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정신장애인 직종개발을 위해 선행될 과제이기도 하다.

4. 발달장애인 고용 활성화 반면교사

얼마 전까지도 발달장애인의 고용은 불모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문화예술일자리 특화 사업 활성화까지 이어지며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정신장애인의 고용도 발달장애인 고용사례를 참고한다면 조속한 고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기반의 공동체에 주목하여 정신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나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결성을 준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최근 들어 발달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대기업이 지분을 투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나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등은 법적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성공사례들을 본보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단순히 성향을 고려한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일

1) 도보배달원, 새싹재배사, 온라인상품정보원, 편의점 스태프, 동료지원사, 도심공원관리, 도시양봉가, 사무보조, 사서보조, 환경미화, 텔레마케터, 제본, 복사, 배달, 카페매니저, 동물관리사

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장소를 찾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고용을 유지함에 있어 정신장애인은 오히려 기능적인 면보다는 일하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단순히 개인의 성향에 잘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환경을 찾는 것이 더 많은 정신장애인의 고용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최희철 외(2020)는 비교적 단기간의 훈련을 통해 사회적 고용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전략직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는 전일제 근로보다 시간제 근로가 많으며, 임시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장애인 인구 중 다수가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르고 있기에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기 위한 가교역할을 담당할 직종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박종빈, 정유석(2022). 정신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우소현 (2020). 동료지원가 활동을 통해 나타난 정신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경험. 간호학의 지평, 17(1), 40-48.
이정주 (2023). 장애인과 일터 6월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최희철, 배은미, 신숙경, 박동진 (2020). 정신장애인 정신재활시설의 직업재활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직업재활실무자의 초점집단인터뷰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8(10), 479-490
하경희 (2020).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서비스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 질적연구, 14(1), 5-37.

5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경험 사례와 향후 과제

오승애 대표
(천사베리농장)



사회적 농업 천사베리영농조합법인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가는
마음 나눔 천사 베리 농장

정신장애인 사회적농업 사례와 향후과제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패밀리링크가족강사

한국정신 장애인 가족지원가협회 가족강사

천사베리영농조합법인 대표 오 승 애

목 차

- 1) 사회적농업을 통한 경험과 사례
- 2) 사회적농업 향후과제
- 3) 농장 소개

걸어왔고 걸어가야 할 길

- 심리 상담사 1급
- 청소년 진로 상담사
- 사회 복지사
- 유아교육 정교사
- 인권 강사
- 자살 예방 강사 (생명 존중희망재단)
- 전) 광주광역시 복구 심의 위원
- 한국 정신건강재활협회 Family Link Korea 가족 강사회 강사
- 한국 정신장애인 가족 지원가 강사
- 천사 베리 영농조합 사회적농업 대표

1) 사회적 농업을 통한 경험과 사례

ㄱ) 노동이 아닌 건강한 농업 활동

힘들어 하는 가족, 마음 아파하는 참여자를 어떻게 ?

참여자가 **오감만족**을 느껴야 한다는 사명으로 실천

- ➡ 먹거리, 볼거리, 동물과 교감, 식물과 교감, 일자리 선택의 길, 즐거운 놀이와 게임, 힐링

천사베리영농조합

ㄴ) 농촌에서 희망을 찾다

질병 너를 알았기에 회복 할 힘 얻었다

- 그 길 찾았기에 회복의 길 안내자의 역할자로 활동
- 마음을 치유와 회복하며 신체적건강을 지원하는 농장
- 정신장애인, 이중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농장

- ➡ 마음건강과 소외계층을 위한 농장

천사베리영농조합

ㄷ) 일을 놀이 처럼

즐거우면 회복된다

- 텃밭 가꾸기
- 화단 가꾸기
- 수확의 참 기쁨 나누기 (유기농 야채)

천사베리영농조합

ㄹ) 나들이, 선진지 견학, 가족 단위 캠핑, 힐링 계획

- 가족단위 나들이계획, 여행계획, 힐링 계획
- 참여자가 주도하는 방법으로 계획 세우기

➡ 함께 공감하며, 소통, 배려, 지지 문화 만들기

천사베리영농조합

㉠) 치유의 방법과 회복

1. **교육** - 한국정신사회 재활협회 에서 발행한 교재(12과)를 활용한 교육운영
2. **동물치유** - 강아지, 고양이, 닭, 거위, 토끼,
3. **원예치유** - 텃밭과 온실하우스이용 약물복용한 참여자에게 먹거리제공 하므로 건강에 매우 좋은 사례(사계절 각종 야채, 아스파라거스, 아로니아, 블루베리, 사과대추, 비파, 가시오가피, 엄나무, 구기자, 보리수 등)
4. **음악&힐링 치유** - 노래방설치운영 , 자연과 함께

➡ **치유와 회복 그리고 취업의 모델**이 되는 농장으로 육성

1. **교육** - 한국정신사회 재활협회에서 발행한 교재(12과)를 활용한 교육운영



1. 교육 - 천사베리농장교육장과 농부카페에서



2. 동물치유 - 토끼



동물치유 — 고양이, 거위



2. 동물치유 — 강아지, 거위, 햄스터



3. **원예치유** - 텃밭과 온실하우스이용 약물복용한 참여자에게 먹거리 제공 하므로 건강에 매우 좋은 사례(사계절 각종 야채, 아스파라거스, 아로니아, 블루베리, 사과대추, 비파, 가시오가피, 엄나무, 구기자, 보리수 등) - **마음 건강에 좋은 농산물 활용**



3. **원예치유** - 텃밭과 온실하우스이용 약물복용한 참여자에게 먹거리 제공 하므로 건강에 매우 좋은 사례(사계절 각종 야채, 아스파라거스, 아로니아, 블루베리, 사과대추, 비파, 가시오가피, 엄나무, 구기자, 보리수 등) - **마음 건강에 좋은 농산물 활용**



3. **원예치유** - 텃밭과 온실하우스이용 약물복용한 참여자에게 먹거리 제공 하므로 건강에 매우 좋은 사례(사계절 각종 야채, 아스파라거스, 아로니아, 블루베리, 사과대추, 비파, 가시오가피, 엄나무, 구기자, 보리수 등) - **마음 건강에 좋은 농산물 활용**



3. **원예치유** - 텃밭과 온실하우스이용 약물복용한 참여자에게 먹거리 제공 하므로 건강에 매우 좋은 사례(사계절 각종 야채, 아스파라거스, 아로니아, 블루베리, 사과대추, 비파, 가시오가피, 엄나무, 구기자, 보리수 등) - **마음 건강에 좋은 농산물 활용**



4. 음악&힐링 치유 - 노래방설치운영, 자연과 함께



4. 음악&힐링치유 - 놀이 문화를 통한 자연과 함께



4. 음악&힐링치유 - 마음풀기 & 발 맛사지



2) 사회적 농업 향후과제

1) 당사자들이 병원에서 퇴원하면 갈 곳이 없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이문제를 어떻게 사회적농업의 기반을 확대하여 기존병원이나 정신건강센터, 시설과 사회적농업의 농장이 연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당사자나 가족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농장에서 힐링하고 마음의 여유와 함께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2) 현재까지는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현재보다 더 나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직장의 취직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여 모든 참여자와 가족을 위하여 연구하고 함께 노력하면 된다고 제안합니다

3) 건강한 사회적농업을 만들어가는 천사베리농장이 함께하는 문화, 살기 좋은 농촌, 그리고 건강한 농촌을 만들어 가는 문화구축을 제안해 봅니다

농장 소개 아로니아 꽃



교육장, 상담실, 헬스



블루베리밭



사과대추나무



원예치유 - 텃밭 (김장배추)- GCM, 미생물 유기농 관 러



고구마 수확



새로운 농장조성, 심 공간 전경



도시농부 카페



함께하는 가족문화



도자기 전공 대학 교수님 도움 -- 재능기부



당사자 최근모습



당사자는 11년째 근무중



천사베리농장 오는 길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입석길 264-7

(장성 IC에서 혁신 도시쪽으로

본량 IC로 내려 오면은 5분 거리)

H: 010 - 8623 - 3355

사회적농업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



사회적농업은 자연과 농업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고 배려와 지지 서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서로 배워가며 알아가는 마음을 나누는 농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농업을 통한 회복으로 가는 길

서로 **“존중”**하는 문화

서로 **“배려”**하는 문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문화

“공감”과 **“소통”**

“함께”하는 가정의 문화가

사회복귀를 위한 가족구성의 역할이 아닐까요?

사회적 농업을 통해서 모두가 치유와 회복이 되며 행복했으면 합니다

감 사 합 니 다

천사베리영농조합

6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지원 방안으로서 사회적 농업의 가치

안병은 전문의
(수원행복한우리동네의원)



치료적 장소로서의 농촌

행복한우리동네의원
수원시자살예방센터
협동조합행복농장
안 병 은

1.

행복농장을 개소하기 전에 가졌던 단순한 논
리 : 농촌에도 정신장애인이 살고있다

2.

그럴싸한 학문적 논리 : 자연은 정신건강에 이롭다

View through a Window May Influence Recovery from Surgery

Roger S. Ulrich

Science, New Series, Volume 224, Issue 4647 (Apr. 27, 1984), 420-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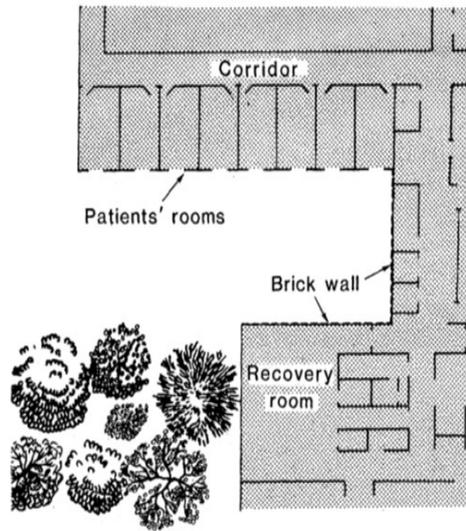


Fig. 1. Plan of the second floor of the study hospital showing the trees versus wall window views of patients. Data were also collected for patients assigned to third-floor rooms. One room on each floor was excluded because portions of both the trees and wall were visible from the windows. Architectural dimensions are not precisely to scale.

Recovery data were extracted from the records by a nurse with extensive surgical floor experience. The nurse did not know which scene was visible from a patient's window. Five types of information were taken from each record: number of days of hospitalization; number and strength of analgesics each day (7); number and strength of doses for anxiety, including tranquilizers and barbiturates, each day (8); minor complications, such as persistent headache and nausea requiring medication—symptoms which are considered to result frequently from conversion reactions (9); and all nurses' notes relating to a patient's condition or course of recovery.

Table 1. Comparison of analgesic doses per patient for wall-view and tree-view groups.

Analgesic strength	Number of doses					
	Days 0-1		Days 2-5		Days 6-7	
	Wall group	Tree group	Wall group	Tree group	Wall group	Tree group
Strong	2.56	2.40	2.48	0.96	0.22	0.17
Moderate	4.00	5.00	3.65	1.74	0.35	0.17
Weak	0.23	0.30	2.57	5.39	0.96	1.09

3.

당황스러운 반대 논리 : 한국에서는 농촌 노인의 자살률이 더 높다

4.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초록을 충전하라

Curr Epidemiol Rep (2015) 2:131–142
DOI 10.1007/s40471-015-0043-7

ENVIRONMENTAL EPIDEMIOLOGY (G WELLENIUS, SECTION EDITOR)

A Review of the Health Benefits of Greenness

Peter James^{1,2} · Rachel F. Banay² · Jaime E. Hart^{2,3} · Francine Laden^{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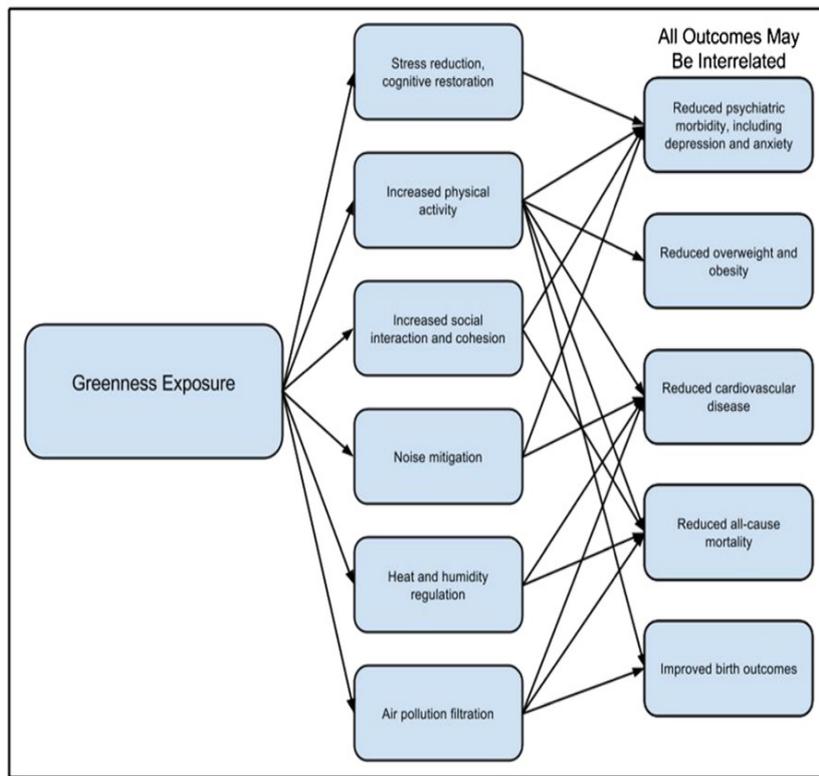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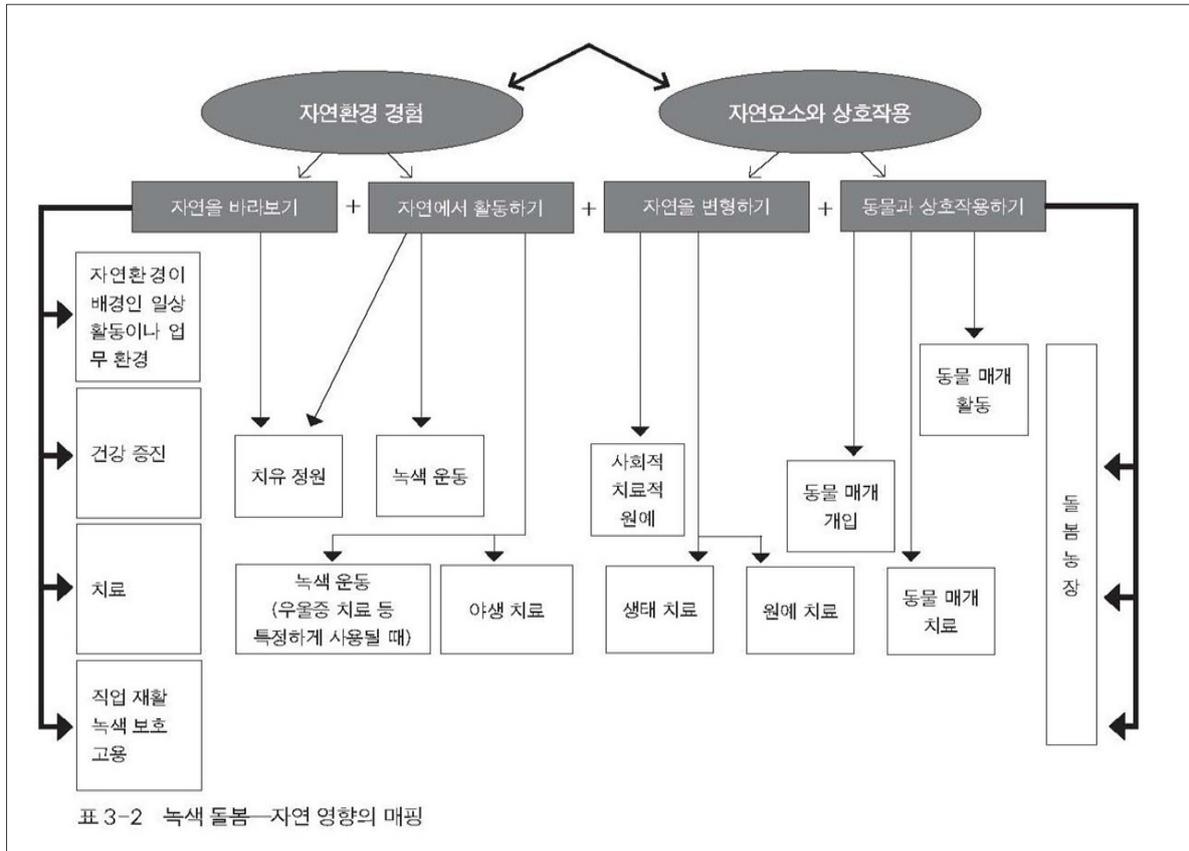


Fig. 1 Pathways through which greenness may affect health

5.

체험 -> 치료적 활동 -> 치료 -> 재활 -> 고용



6.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한 치유적 공간

Development of the Nature-Based Therapy Concept for Patients with Stress-Related Illness at the Danish Healing Forest Garden Nacadia

Sus Sola Corazon, Ulrika K. Stigsdotter, Anne Grete Claudi Jensen, and Kjell Nilsson



Figure 1: Design of the healing forest garden at Naca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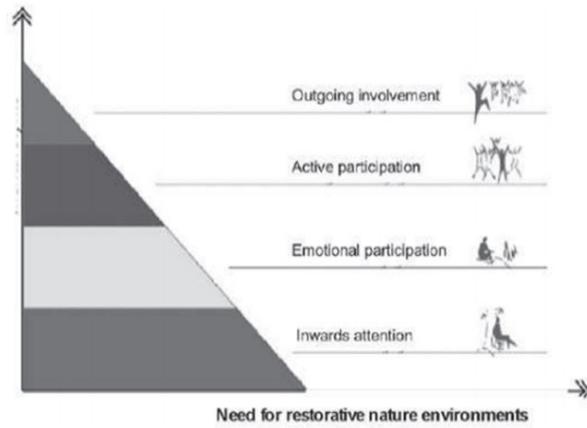


Figure 2: Interconnection between mental strength, nature environments, and social interaction. Modification of Stigsdotter and Grahn's (2002, p.64) model.



Figure 3: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strength and garden rooms in Nacadia.

7.

Franz Salez Haus, 베델의 집, 그리고 흥성 장곡의 ???



**Franz
Salez
Haus**

공동체를 통한 care

- ▷ 정신장애인 삶의 모든 분야에서 동반, 도움, 지원을 제공
- ▷ 현재 약 1,000명의 직원
- ▷ 에센 지역 내 20개 이상의 장소
- ▷ 호텔, 베이커리, 농장, 카페, 레스토랑, 작업장 등



7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부처 간의 협력 I

전명숙 과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memo.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notes.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memo.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memo.

8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부처 간의 협력 II

최봉순 과장
(농림축산부 농촌사회서비스과)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memo.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notes.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memo.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notes.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 행 일 2023년 7월

발 행 처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cowaik.or.kr>

연 락 처 02) 2675-5364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I S B N 979-11-92957-03-6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